

## “행락철 무탈하길”... 코로나 방역 또 비상

개천절 연휴 나흘 동안 15만여명 제주 나들이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며 당국 긴장의 연속  
 道 “공·항만 중심으로 방역 강화 등 예의주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개천절 연휴에만 1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 한글날 연휴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5면

4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2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개천절 대체휴무인 4일에도 초가를 제주 정취를 즐기 위해 3만여명 안팎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천절 연휴기간에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말 한글날 대체연휴 기간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업계에 확인한 결과 도내 특급 호텔의 경우 방역 수칙에 따라 전체 객실의 3/4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와 주말 모두 예약이 모두 차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추석 이후 60% 대를 보이던 렌터카 예약률은 최근 8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장 역시 이번달 주말 모두 예약이 끝났다.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 데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최대 8명(백신접종 완료자 4명+비접종자 4명)으로 늘면서 관광객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 종사자는 “가을 행락철 기간에 개천절 한글날 연휴까지 겹치면서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거

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 식당 내 취식 시간 제한 등으로 여전

히 지역 식당가 등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 방역당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천절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육지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발열 확인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망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관광객 모두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호드러지게 핀 메밀꽃 3일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소근 강희만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연장

道 “확진자 수 2단계 기준이지만 연휴 기간 고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결혼식 등 참석기준 완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제주도는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개천절·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어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단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현재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 기준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명이지만, 제주도는 참석 인원

백신 접종완료자 50명이 포함될 경우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에 대한 참석 인원엔 접종완료자 100명이 포함된다는 조건 아래 수용 인원을 기존 99명에서 199명으로 조정했다.

돌잔치도 현재 최대 16명만 참석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면적 3000㎡ 이상인 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의무화했다. 이상민기자

## 제2공항 운명 결국 차기 정부서 결정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증 용역 공고  
 용역기간 7개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끝난 후 결론

속보=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연구 용역(본보 9월24일자 1면)을 공고했다. 또 국토부가 용역 기간을 7개월로 정하면서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개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다음 정부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지난달 30일 공고해 용역 수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할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용역 결과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제출해 중단된 절차를 재개하고, 반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

항 건설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환경부가 반려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습곡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만약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토부는 용역 기간을 7개월로 제시했다. 용역 개찰 시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6-7월쯤 나올 수 있다. 또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만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내려진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7월20일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한 뒤 두차례 보완한 것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 다양성 확보 ‘청신호’

‘제주 산림생물표본관’ 건립... 보전자원 관리·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지역 산림생물 보전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주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이 추진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 등에서의 멸종위기 생물 표본을 보관하고 희귀·특산식물 대량을 증식할 수 있는 제주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지역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 구상나무 고사 등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산림생물 보전자원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현재 한라산 등에서 멸종위기 생물 표본을 수집하고 있지만, 증식시설 및 보관시설이 미비해 표본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찾아진 태풍과 강한 바람, 기

후 변화, 숲의 연령구조에 의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39% 이상 쇠퇴한 것으로 보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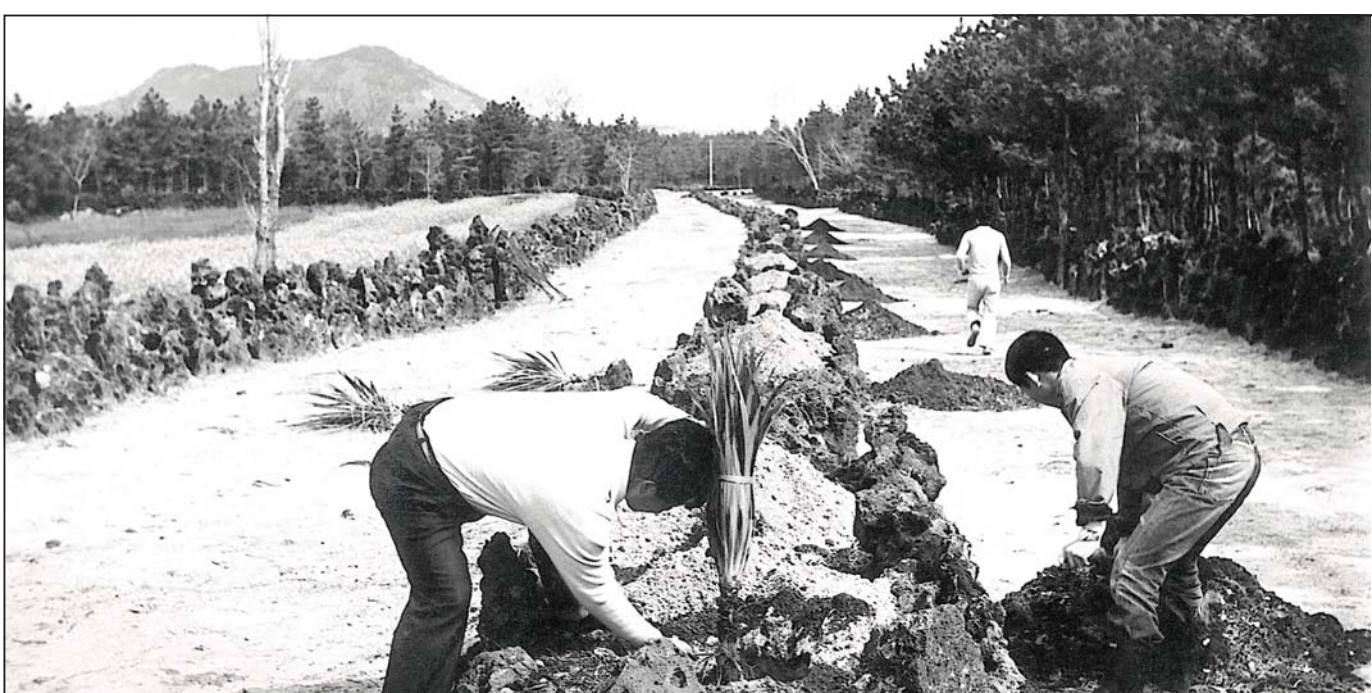
제주 산림생물표본관의 주요 시설 내용은 산림생물종의 시간·공간적 증기인 생물표본을 보관하는 표본실, 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근간이 되는 종자 장기 저장시설인 종자은행, 증식이 어려운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대량 증식시설인 조직배양실 등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내에 연면적 2371.26㎡(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1차년도, 2차년도를 포함해 총 86억8500만여원이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909**  
 4월 17시 기준



Since 1971  
**창립50주년** **HallimPark**  
**한림공원**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별도의 모래밭이 녹음으로 만들어 간 50년의 세월-  
 저희 곁에는 언제나 제주도민의 성원이 있어 왔습니다.  
 제주한림공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척의 역사를 개틀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림공원 50주년 기념 콘서트** 제주도민 무료관람

**10'9** 오후3시 **어쩌다 Festival**  
**10'10** 오후3시 **진로 뮤지컬 "우리들의 노래"**  
 오후4시 **치유와 힐링 드림 콘서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300 (63011) Tel. 064)796-0001 Fax. 064)796-0006  
 www.hallimpark.com www.facebook.com/jejuhallimpark www.instagram.com/jeju\_hallimpark 한림공원